

2024년
고2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지지헌기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이른바, 지지(止止)라는 것(‘지지지지(知止止止)’ : 그침을 알아 그칠 데 그친다.)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쳤기 때문에).

또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은 늪과 못이나 굴에 있어야(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동물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인데, 가령 본고장을 떠나서 혼잡한 성시(城市) 가운데에 그친다면(그칠 곳에서 그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칠 것(그칠 곳에서 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동물을 예로 들어 설명함.)은 필연한 일이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거만스러워 남과 합하는 일이 적으니, 길들여진 물건이 아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가고 나란히 달려서 명리*의 지경에 그치게 된다면(그칠 곳에서 그치지 못했을 때), 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그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앞서 예시로 든 동물의 상황을 들어 자신이 ‘명리의 지경’에 그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함.) 이것은 내가 그 그칠 곳을 구하여 그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고 따라서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

하였더니, 어떤 이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산림이나 궁곡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잡하게 한곳에 있지 않은 연후에야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다(이규보의 말을 들은 ‘어떤 이’가 산림이나 궁곡처럼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음.). 이제 자네가 그친 곳은 곧 성시의 가운데인데, 오히려 그칠 곳에 그쳤다고 하여,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어떤 이’의 입장을 묻는 문제에 ‘어떤 이’는 이규보가 있는 공간과 ‘호랑이, 표범, 고라니’ 등이 있는 공간이 다름을 근거로 비유의 이유를 묻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벌레와 짐승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은 역시 각각 그 그침의 뜻뜻한 것이다. 가령 사람이 늪과 못에 앞드리고 굴에 들어간다면(늪이나 못, 굴은 인간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님.), 역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성시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동물이 성시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한 공간에 들어간 것이 아님.),]([]: 각 본성에 맞는 장소에 머물러야 함. 「**왜송설**」 과의 비교를 묻는 문제에 **두 작품 모두 본성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독충이나 맹수가 또한 반드시 재앙으로 여기고 때를 지어 해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여 벌레와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한다.

또 사람이 사람을 꺼리어 해치기를 피하는 것은, 성시가 좁아서 같이 처하는 것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구하는 것과 그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다(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이유). 진실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여, 비록 대낮에 내 상자를 훔쳐가는 자가 있더라도 피하고 보지 않는다면(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음.), 사람이 성시에 처하는 것이 또한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이 늪과 못이나 굴에 처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해칠 자가 있겠는가? 내가 거처를 이렇게 이름한 것은 대개 이러한 뜻이다.”

정묘년 3월 10일에 기(記)한다.

- 이규보, 「지지헌기(「**왜송설**」 과의 비교를 묻는 문제에 **두 작품 모두 문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 교룡: 뱀을 닮은 상상 속 동물
- * 명리: 명예와 이익

핵심 정리

- 갈래: 기, 고전 수필
- 성격: 교훈적, 고백적
- 주제: 그칠 곳에 그쳐야 함을 역설함.
- 특징
 - 동물의 상황을 들어 내용을 전개함.
 - 문답법을 통해 교훈을 전달함.

작품 해제 1

이 글은 동국이상국전집 제23권 기(記)에 실린 이규보의 수필이다. 거처를 '지지현'이라 이름한 이유와 관련 지어,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칠 곳에 그침으로써 해를 입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그칠 곳에 그친다'라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작품 해제 2

이규보는 고려 후기 무신 정권기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의 처세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다. 이 글 역시 세상의 더러움과 다툼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려는 화자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자신이 머무는 곳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이어야 함을 동물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답 형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 해제 3

이 글은 이규보가 자신의 거처 이름을 '지지현'이라고 짓고, 거기에 붙인 '지지(止止)'에 대한 변이다. 이규보는 자신의 호를 '지현(止軒)'이라 짓고 그에 대한 변으로 『주역』의 '그칠 곳에 그치니 속이 맑아 허물이 없다(止于止內明無咎)'라는 대목을 빌려 왔다. '지지'는 '지우지(止于止)', 즉 '멈출 곳에 멈춘다'는 뜻이다. 글쓴이는 '호랑이와 표범, 고라니와 사슴, 교룡'과 같은 짐승이 깊은 산 속이나 연못과 같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 역시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겠다고 말한다. 이때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리(名利)의 길과는 다른 길을 의미한다. 이에 남과 어울리지 않는 거사(이규보)의 성정으로 미루어 보아 산림이나 궁곡과 같은 외진 곳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어떤 이'의 질문에 글쓴이는 짐승들이 수택이나 굴혈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성시(成市)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이 성시에 머물지 않으면 재앙이나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시에서 사람들의 다툼이 많은 것은 성시가 비좁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다투기 때문이며, 그러한 태도를 버리기만 한다면 성시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당연한 장소가 된다. 혼탁한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말로, 사람이 사람을 피해서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사는 것은 본성에 맞는 길이 아니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욕심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도리에 맞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익을 다투지 않고 명리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궁벽한 산림에 머물며 은둔하여 지내는 선비들과도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